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연구프로젝트가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 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 사업이다.

자료 조사를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불교·티베트학과'와 '인도학과',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불교학과'와 '산스크리트어 사전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중남 박사책임연구원은 "문헌학적 연구가 발달한 유럽의 불교학자들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연구 프로젝트라며 기대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합대장경 목록 정리'라 불리는 이 사업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 중인 고려대장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어느 하나의 경전 또는 논서가 다른 한역 대장경(14종)이나 팔리어 대장경(1종), 티베트어 대장경(5종)의 몇 권, 몇 쪽, 몇째 줄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 또한 경·목·론 삼장 가운데 분실 또는 산실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경전 이름을 현존하는 한역이나 티베트어 대장경과 비교해 원래의 이름을 찾아주거나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아 주고, 해제까지 작성하게 된다.

최 박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원전을 티베트어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판본마다 경전 이름이 다르게 전하는 경우

### 한역·팔리어·티베트어 대장경 등

# 세계 대장경 목록 한눈에

#### 원래 경전 이름 찾고 잘못된 이름 바로잡아 고려대장경연, 12월께 '흠피' 통해 공개



◀불교논리학인 인명학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빈대학 불교·티베트학과 슈타인켈너(사진 오른쪽) 주임교수로부터 이 대학에서 출판한 중관학 관련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통합대장경팀.

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역대장경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아파승사>의 경우 산스크리트어 경전명 표기가 'Saṅghbedakvastu(승과사)' 혹은 'Vinayavastu(율사)'로 다르게 전한다는 것. 이럴 경우 1차 자료(산스크

리트어·팔리어)→ 한역·티베트 자료→ 사본과의 대조를 통해 원래의 경전 이름을 찾아주게 된다. 특히 한역대장경의 경우 축약·오역·판각 오류·의역·첨가가 많아 역자나



◀동행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한문 사본들.

번역시기가 불분명한 게 많은데 모든 문헌을 대조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역대장경 14종과 티베트어 대장경 3종을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끝냈고, 2차년도에는 티베트어 대장경의 나루판·조네판 판본과 팔리성전협회에서 정리한 팔리어 대장경, 관련 사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대조 작업이 끝난 목록은 12월경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외국학자들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책자는 영문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인도의 불상(간다라불상, 편양, 2-3세기).



◀중국의 불상(은강석굴의 북위불, 5세기).



◀한국의 불상(경주배리서불의 신라불, 7세기).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 불상(1)

#### 불상이미지의 이상과 현실

몇 년 전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고창고성(高昌故城)을 대학원생들과 찾았다. 우리 일행이 버스에 내리자마자 그곳 어린 아이들이 두 손에 방울을 가득 들고 손가락에 모여들었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미란 지역의 불상과 비슷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란 부처님이다"라며 가벼운 탄성을 지었다. 그러자 일행들은 그 아이를 향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덕분에 그 아이는 손에 든 방울을 모두 파는 황재를 누렸다. 미란 불상은 미란 사람을 닮은 것이다. 우리나라 불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눈이 썩어붙인지 아닌지를 본다. 애초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상은 인도처럼 썩어붙이지만, 우리나라 불상은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모델로

의 모습이다. 우리들이 원했던 붓다는 인도의 붓다라기보다는 한국의 붓다였던 것이다. 이처럼 불상의 이미지는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상에 반영된 현실의 모습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고구려불상·백제불상·신라불상과 같이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그 얼굴이 다르고, 통일신라불상·고려불상·조선불상 등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그 모습이 다른 것이다. 도대체 이처럼 다양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른 이유는 각 지역의 사람들의 외모가 다르고, 불교사상이 다르며, 각 나라에서 유입한 불교문화의 경로가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시대별로 다른 이유는 시대마다 이상형이 다르

### 불상모습 조성국가·시대에 따라 제각각 불교사상·외모·유입경로가 다르기 때문

삼았기 때문에 모두 외갓집이기 때문이다. 불상은 그 지역의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불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범인 32상 80종호, 즉 112가지의 원칙이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다. '몸이 황금빛으로 자마금과 같다' '정수리에 육계가 있다'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등 외형적인 특징부터 '목소리가 천둥소리 같되 맑고 부드럽다'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등 내면적인 특징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얼굴을 넓고 둥글며 달과 같아야 하고 위엄이 있어야 하며 구족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조성된 불상은 제각각이다. 서역불상은 서역인의 모습이고, 중국불상은 중국인의 모습이며, 일본불상은 일본인

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으로 불상의 이미지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명쾌하게 밝히는 일이 미술사학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원래의 불상은 인도인이지만, 각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이상형을 펴쳐나갔다. 불상을 조성하는 규범이 불경에 자세하지만, 현실과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까지 규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불상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쫓는 데 불상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분된다. 그것은 다양함 속에도 불상이 갖는 보편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불상의 이미지는 일즉다(一則多), 다즉일(多則一)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 “시대·사회적 환경 따라 필요하면 계율도 바뀌어야”

#### 박정복 씨 '불교평론' 기고

승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계율의 개정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글이 발표됐다. <불교평론> 여름호(총권 15호)에 실린 박정복 씨의 '계율에의 불복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대적·사회적 환경이 바뀌어 무의미해졌거나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계율이 있다면 '개정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집단의 규율이 '제정 원칙' 혹은 '정신'에 위배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불복종의 권리가 현대 윤리학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살핀 박 씨는 계율에의 불복종과 계율의 개정이 불교 안에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사분율>이나 <장아함경> 등의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상황에 맞추어 계율을 개정했고, 사소한 계율은 버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 말처럼 쉽지 않다. <법광경>을 보면 불교 윤리(계율)는 '진리'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불복종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진리의 화신인 부처님께서 설한 계율 역시 진리이기 때문에 불안전할 수가 없다. 계율이 개정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스님들은 날마다 금전을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파계할 것이다."

### “단청의 오방색은 음양사상에 기초” “부처님 세계를 색깔로 나타낸 것”

#### 불교학연구회 '불교문화예술' 워크숍

"영산재 때 머리에 '고깔'은 왜 쓰나요?" "고깔은 3단으로 돼 있는데 밑에서부터 '육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며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2일 저녁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 학교(총장 종범) 본관 4층 대강당. 능화스님(인천시 무형문화재 10-가호 보유자)의 '법페와 작법무' 강연이 끝나자 쌓여있던 질문들이 쏟아졌다. 실수(實修)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현장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여름 워크숍을 꾸려온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가) 이번엔 선택한 주제는 '불교문화예술의 이해와 체험'.

불교미술과 무용을 주제로 1박2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 가장 풍성한(?) 애 것거리를 남긴 건 '단청'이었다. 박미례

한국단청문양연구회 소장이 "사람 단청에 쓰이는 오방색(靑·적·황·백·흑) 혹은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종범 스님이 바로 '부처님 세계를 색깔로 나타낸 것 단청'이라고 생각해야 할 의미와 교리에도 맞지 불교에서 음양오행을 갖고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 논란은 둘째말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발표한 조셉 스님(부산광역시 주지)의 "티베트 만다라에 쓰이는 오방색(靑·적·황·백·흑)은 '오방여래불'을 각각의 색깔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설명에 의해 수습됐다.

해주 스님은 "불교 정신이 삶에 스며들어 유·무형으로 나타난 게 불교문화"라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성을 느낀 자리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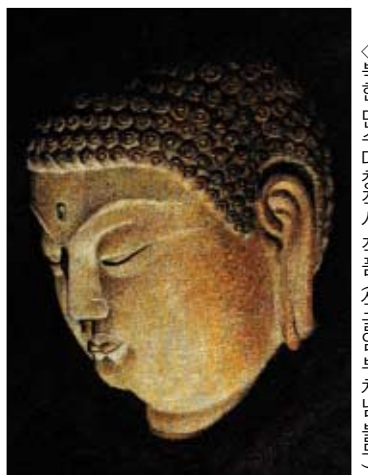
#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누구든 원하는 소재·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 불교자수 특징

-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 명주실·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남수록 진가 더해
- \* 법당 행화·불화로 적격

#### 용도

- \* 불화(행화, 불보살도)
-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 기업기념사진(창립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 등)
-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 등)

#### 주문시 유의사항

-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뚜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 주문안내

- \* 대형 (60cm×80cm) \* 중형 (30cm×40cm)
- \* 소형 (20cm×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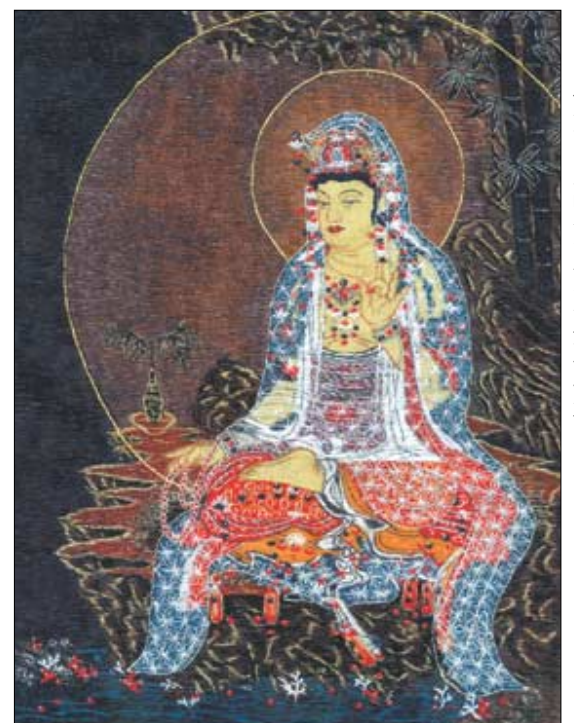
#### 특별보급 작품

-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한암·효봉·동산·청담·성철 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 소장용·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37-0697 www.mahamall.co.kr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수월관음)